

전통가옥의 담과 울타리에 반영된 바깥 세계에 대한 이해 -양반가옥과 평민가옥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재흥*

- I. 들어가는 말
- II. 담과 울타리의 특징
 - 1. 양반가옥의 울타리
 - 2. 평민가옥의 울타리
- III. 교육적 해석
 - 1. 양반가옥의 높은 폐쇄성과 다층적 구분
 - 2. 남녀유별의 형식성과 실질성
 - 3. 낮은 울타리와 이웃
- IV. 맺는 말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통주거의 울타리와 담의 특징을 통해서 바깥 세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려 하였다. 연구 결과 양반가옥과 평민가옥의 담과 울타리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양반가옥의 담은 평민가옥에 비해 높고 견고했다. 양반가옥의 담과 행랑채, 문은 중첩적으로 공간을 가르고 차단하였다. 이는 반상의 구별, 남녀의 구별 등 유학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평민가옥의 담과 울타리는 허술하고 낮았다. 이는 이웃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양반들과 평민들은 유학적 가치관과 이웃에 대한 긍정적 이해라는 서로 다른 가치관에 기초해서 서로의 거주 공간을 다

* 나사렛대학교

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거주공간의 특징이 다시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전통 주거, 담, 울타리, 남녀유별, 반상

1. 들어가는 말

집은 인간의 삶의 중심 공간이다. 인간은 집으로 태어나고 집 안에서 성장하며 집을 중심으로 세계와 관계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야기 할 때 집은 빼 놓을 수 없는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집과 인간의 관계의 이와 같은 밀접함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바슐라르는 집은 인간 몸의 확장이며, 집에는 영혼이 집에 머물러 있다고 시적으로 표현하였다.¹⁾ 마찬가지로의 의미에서 볼르노는 공간과의 관계가 인간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였다.²⁾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는 동안 사회와 문화는 다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회와 문화 현상은 단순히 인간의 창조물로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하며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사회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인간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거주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집은 가장 대표적인 문화현상 중의 하나이다.³⁾ 교육의 인간학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과 문화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에 착안에서 인간의 문화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통로로 삼았다. 이를 기관의 원리(Organon-Prinzip)라고 한다.⁴⁾ 문화현상을 통해서 인간을 환원적

1)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153.

2) O. F. Bollnow, Mensch und Raum, Stuttgart, 1984, p. 22.

3) S. Kern,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 Harvard Univ. Press, 1983, 박성관 옮김,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2004, 347.

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관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문화해석학의 경향을 띤다.

우리의 전통 주택 역시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현상으로서 한국인을 이해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주택은 한국인의 거주 공간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와 이웃을 비롯한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등이 오랜 세월을 걸쳐 누적되고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주택들은 옛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기관이며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집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격형성의 관계를 다룬 일련의 연구들⁵⁾ 중의 하나이다.

현재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옛 주택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주택들이다. 그것도 조선 중기 이후의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조선시대 양반들의 주거는 가정생활 속에서 유교적인 이념과 생활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신분에 걸맞는 상징적 권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했다.⁶⁾ 주택은 생활공간에 그치지 않고 유학적 가치인 삼강오륜과 소학의 실천 장소로서 교육적 공간이었다.⁷⁾ 양반들은 자신의 집을 유학적 이상에 충실한 공간으로 설계하고 건축하였다. 그들에게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은 일상생활의 중심이었으며,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인 집의 건축에도 마찬가지로 의도가 반영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유학적 이상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

4) O. F. Bollnow, Pädagogik in anthropologischer Sicht, Yamagawa Univ. Press, 1971, 오인탁·정혜영 옮김, 『교육의 인간학』, 문음사, 2005, 60.

5) 윤재홍, "'울타리'의 교육인간학적 의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전통사회의 어린이 공간으로서의 마당과 골목의 특징", 『한국교육사학』 34(4), 2012, 83-101; "전통주거에 나타난 한국인의 자연관과 그 교육적 의미 - 텃제, 집짓기 재료의 선택과 가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3(1), 2011, 97-113; "주거에 반영된 한국인의 자연과의 관계방식과 그 교육적 해석", 『한국교육사학』 35(2), 2013, 1-17; "한옥에 반영된 구별의 질서와 그 교육적 적용에 대한 해석 -담과 울타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4(2), 2012, 77-98.

6)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9, 86.

7) 강영환, 앞 책, 103; 한국교육사학회 편, 『역사속의 교육공간, 그 철학적 조망』, 학지사, 2011, 270.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의 구조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옛 주택의 구조적 특징을 매개로 집을 둘러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유추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울타리와 담이라는 집과 집밖의 세계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는 장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집을 매개로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고, 그것이 어떤 특징으로 울타리와 담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방법은 답사와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옛 주택과 마을의 원형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아산 외암리, 안동 하회마을, 고성 왕곡리, 제주 성읍마을 등을 중심으로 답사하였다. 이들 마을들은 양반들의 가옥과 평민들의 가옥이 함께 잘 보존되어 있어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예들이다. 이 밖에 강릉 선교장, 청송 송소고택 등 대표적인 상류층 양반 가옥들을 별도로 답사하였다. 선교장과 송소고택은 각기 99칸을 넘나드는 조선시대 최고의 양반 가옥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양반가의 주택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규모가 큰 주택들인 경우들이다. 선교장뿐만 아니라 하회의 양진당, 충효당, 북촌택, 외암리의 참관택, 건재고택, 교수택, 감찰택 등이 다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들 주택을 건축하고 보존한 이들은 예외 없이 조선 시대의 대표적 양반가문으로서 경제적인 능력까지 갖춘 가문들의 가옥이다. 그러한 지위와 명예와 경제적 능력은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집의 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기후적, 기술적 요소를 넘어서 문화적 철학적 측면이 충실하게 그 집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밖에 수년간의 답사를 통해 축적된 여러 한옥관련 자료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서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한옥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답사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몇몇 지역의 한정된 옛 주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상당한 규모를 지닌 대표적 양반들의 가옥과 외암리, 하회마을, 왕곡마을 등의 몇몇 평민들의 가옥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 만큼 여기에서 다루

는 옛 주택의 특징을 일반적인 옛 주택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매개로 해석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일반화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II. 담과 울타리의 특징

전통적인 마을에서 양반가의 집은 마을에서 제일 높고 좋은 위치를 차지해서 평민들의 집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양반가옥은 평민가옥에 비해서 폐쇄성이 두드러진다.⁸⁾ 더 높고 견고하게 담을 쌓고 튼튼하고 큰 문을 설치해서 출입의 통제를 강화했다. 평민가의 경계는 울타리와 담이 공존하는데 비해서 양반가의 집은 주로 담으로 둘러 싸여 있다. 이들 담은 평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힘든 구조이다. 낮은 울타리와 담으로 둘러싸인 평민들의 집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가옥의 전면부에 담 대신에 건축한 행랑채들은 외부와의 단절을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밖보다 안을 높게 조성한 집터가 안팎의 단절과 차단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건물도 축대를 쌓고 높게 지어서 주변에 비해 두드러진다. 특히 사랑채의 누각 등은 더 높게 건축해서 바깥세상을 둘러 볼 수 있는 조망을 확보하였다. 또 집의 출입문은 나무 대문을 달아서 안을 들여다보기 힘들게 되어 있다. 권위를 상징하는 솟을 대문을 설치하기도 해서 높고 견고한 편이다. 규모가 있는 양반가의 경우에는 대문채 혹은 행랑채를 두어서 그 지붕들이 외부 세계와 집 안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행랑채와 사랑채 안채 등 비교적 큰 규모를 갖춘 집은 그래서 바깥마당에서 행랑마당으로 그리고 사랑마당을 거쳐 안마당으로 연결되는 중첩적인 차단과 단절과 간격을 만들어 낸다. 이들 각각의 채와 그에 딸린 마당은 또 긴 담으로 둘러쳐서 영역을

8) 강영환, 앞 책, 97.

구분하고 시각적으로 차단한다.

이에 대해서 평민들의 집은 양반들의 집이 들어서고 남은 땅에 원래의 지형을 따라 지어진 것이 일반적이다. 양반가에 딸린 평민 가옥들은 양반들의 집보다 아래에 양반가의 집을 둘러싸고 옹기종기 모여 있곤 했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지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만 선교장의 경우에도 담장 밖 낮은 지역이 외거노비 등이 거주하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담을 쌓은 경우에는 낮게 쌓아서 경계를 표시하는데 만족하였고, 바자울에 사립문을 달아서 문을 삼은 경우들이 많았다. 때로는 문을 생략하고 입구를 그대로 열어 두기도 하였다. 부유하지 못한 평민들의 집은 한 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건물 한 동에 작은 마당이 딸린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양반가옥과 평민가옥의 특징을 담 울타리, 문, 행랑채 등으로 세분하고 양반가옥과 평민가옥으로 구분해서 정리한다.

1. 양반가옥의 울타리

1) 담

양반들의 가옥에는 울타리보다는 담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담은 평민가옥의 그것에 비해서 더 견고하고 높다. 양반가옥의 담은 높고 견고해서 방어와 차단 기능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양반가옥의 주인이 부와 위세를 가졌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평지에 건축된 가옥의 경우에 골목과 면한 담들은 더 높게 쌓아서 아예 안을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비해서 평민가옥의 울타리와 담은 낮고 허술해서 담이나 울안의 세계를 차단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양반가와 평민가가 공존하는 아산 외암리에서 이와 같은 양반가와 평민가의 담과 울타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높은 담과 수목으로 외부의 시각을 차단한 외암리 건재 고택 외벽

양반가옥의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계와 차단의 요소로서 안과 밖의 높이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집터를 선택하고 집터를 정돈할 때 집안에 속한 영역을 집밖에 비해서 더 높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팎의 고저차이를 더욱 쉽게 만들어내는 것이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선정이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대표적인 입지를 나타내는 특징이 배산임수인데 산을 등지고 강이 앞으로 흐르는 지형을 말한다.⁹⁾ 그 결과 대부분의 마을에서 집들은 뒤가 높고 앞이 낮은 터 위에 건축된다. 양반가옥과 평민가옥이 함께 위치한 마을에서 양반가옥은 주로 마을의 더 높은 곳을 차지하고 그 아래에 평민가옥이 배치된다. 거기에 더해서 의도적으로 집터를 높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높낮이의 차이가 더욱 커진다. 원래 높은 터를 둘러싸고 높은 담을 쌓았기 때문에 양반가의 담은 아래쪽에 위치한 평민가옥이나 길에서 볼 때는 매우 높아서 안을 들여다보거나 쉽게 침입할 수 없는 높이를 갖게 된 것이다. 집 앞 낮은 곳에서는 대문과 행랑채만 보일 뿐인데 반해서 사랑채나 누마루에서는 바깥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¹⁰⁾

그런데 이 경우 양반가옥의 뒷면에 다른 집이나 길이 위치할 때는 반대의 경우가 될 우려가 있다. 집에 비해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길이나 다른 집에

9) 김대벽·신영훈, 『한옥의 고향』, 대원사, 2000, 73.

10) 같은 책, 72-74.

서 집안을 내려다보기가 쉽게 되기 때문이다. 아산 외암리의 참판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한 별도의 장치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은 대나무를 심어서 시각적 차단 효과를 더 높인 것이고, 다음으로는 길과 담 사이에 배수로를 내어서 간격을 두었다는 점이다. 또 배수로 건너편의 담 아래에는 발 디딜 공간을 찾기 힘들어서 안을 넘겨다 볼 수 있는 자리를 찾기 힘들다.



(그림 2) 대나무와 배수로를 활용해서 내부 공간을 보호한 외암리 감찰덕

이처럼 집의 안팎을 구별하는 외에 집안의 영역들을 구별하는 담도 양반가옥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평민가옥에 존재하지 않는 집안 영역을 구분하는 담이 양반가옥에 존재한다. 양반가옥에는 사랑채, 안채, 별당, 행랑채 등 여러 개의 구별된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행랑채와 사랑채, 행랑채와 안채, 안채와 사랑채, 안채 혹은 사랑채와 별당 사이에 각 영역을 구분하고 차단하는 담이 설치되었다. 각 영역을 오가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문을 설치했다. 이를 중문 혹은 협문이라고 한다.

때때로 남녀 공간 사이에 설치된 중문이나 협문에는 문과 별도로 내외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랑채는 외간남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채에서 안채가 곧바로 들여다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교장의 중문에도 이와 같은 내외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과 밖의 시각적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추사고택이나 윤증고택 등 여러 양반가의

주택에 이와 같은 내외벽이 설치되어 있었다.¹¹⁾

이와 같은 채의 구분과 각 영역 사이의 담은 양반가옥의 공간들이 평민가옥과 달리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각 영역 사이에 설치된 담과 문은 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남녀 공간 사이의 내외벽, 행랑채와 사랑채 사이의 담, 행랑채와 안채 사이의 내외벽 등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다. 또 행랑채에는 존재하지 않는 남녀 공간의 구분 등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2) 문

양반가옥의 문은 평민가옥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는다. 양반가옥의 경우에는 문을 생략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반가옥의 문은 크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원래의 기능인 출입의 통제와 차단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솟을대문, 홍살문, 열녀문 등 과장되고 원래의 기능과의 관련이 적은 문들도 있는데 이는 상징적인 역할에 더 충실한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자의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며, 유학적인 이상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있는 양반가옥의 경우 출입문은 판자를 덧대어 만든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그 위에 지붕을 씌워서 문을 만드는데 위세가 있는 양반가옥의 경우에는 대문을 담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만든 솟을대문을 건축하여 집의 위용을 강조했다.¹²⁾ 이는 초헌이나 가마 등의 탈 것들이 드나들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다.¹³⁾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중층으로 문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광 연안 김씨 종택의 삼효문이 그것인데 삼대 째 효자를 배출해서 특별히 중층으로 된 문을 허가받았다고 한다.¹⁴⁾

규모가 큰 양반가옥의 경우에는 바깥대문, 안대문, 중문, 협문, 뒷문 등 다양한 형태의 문이 나타난다. 바깥대문은 가옥 전체의 주 출입문으로서 외부

11)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上 - 한국전통민가의 원형연구』, 열화당, 1983, 386-388.

12) 강영환, 앞 책, 97.

13) 신영훈, 앞 책, 380-383.

14)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185.

세계와 집 안의 출입을 위한 장치이다. 이에 비해서 안대문은 행랑채와 사랑채, 안채 사이의 출입을 위한 문이다. 중문과 협문으로 분류되는 작은 문들은 사랑채와 안채, 사랑채와 별당, 사랑채와 행랑, 안채와 행랑 사이에 위치하면서 각각의 영역들을 연결한다. 이 밖에도 가옥의 측면이나 후면에도 문을 만들어서 행랑마당이나 대문을 거치지 않고 외부와의 연결이 가능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¹⁵⁾

조선 시대 최고의 양반 가옥의 하나인 선교장의 경우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선교장의 경우 바깥대문의 경우는 솟을대문으로 안팎의 경계를 삼았다. 이에 비해서 안대문은 대문을 달고 또 그 안에 나무로 내외벽을 만들어서 이중적인 차단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와 연결된 바깥대문보다는 안과 안의 영역 사이에 설치된 문이 더욱 폐쇄적인 특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안채에 해당하는 동별채 및 서별채와 사랑채 사이의 협문에는 별도의 내외벽을 만들지 않았다.

양반 가옥의 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평민들의 가옥에 비해서 크고 견고해서 안과 밖의 출입을 통제하기 쉽다는 것이다. 앞에서 든 양반가옥의 폐쇄성의 특징이 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양반가옥의 폐쇄성을 만들어내는 문의 특징은 다른 장치들을 통해서 중첩적으로 보완된다. 많은 경우에 양반가옥들은 마을의 중앙이나 뒷 부분에 위치하고 출입문인 대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 골목과 집 바로 앞의 작은 골목인 고살을 지나야 한다. 그런데 그 길과 고살은 대문을 향해 일직선을 이루지 않고 곡선형을 이루거나 직각으로 꺾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문이 열려 있어도 골목에서는 안을 들여다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바깥대문과 중문의 방향을 틀어 시각적 차단을 꾀하는 등의 다양하고 중첩적인 차단장치들이 사용되었다.¹⁶⁾

15) 신영훈, 앞 책, 380-388.

16) 김대벽·신영훈, 앞 책, 81, 88.

3) 행랑채

양반가의 담을 대체하면서 경계와 방어의 기능을 만들어 내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서 행랑채(대문채)를 들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양반가옥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인들이나 바깥손님들을 위한 행랑채를 설치했다. 이 경우에 행랑채는 집의 최 외곽에 해당하는 전면부에 담과 맞대어 설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집의 뒤와 옆은 담을 쌓는데 비해서 행랑채 건물로 담을 대신하게 되 그 가운데에 대문을 두어 출입문으로 삼았다.¹⁷⁾ 강릉 선교장, 하회 충효당과 양진당, 아산 건재고택, 참관택, 교수택, 청송 송소고택 등 답사를 통해 확인한 비교적 규모가 있는 양반가옥들은 모두 이와 같은 행랑채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행랑채를 통해 양반들의 거주공간인 본채와 사랑채, 별당 등을 보호하는 것은 규모가 있는 양반가옥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행랑채를 활용한 전면부의 차단과 방어는 양반가옥의 경계를 이루는 요소 중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효과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¹⁸⁾

행랑채를 두어 바깥과 안을 차단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기제의 역할을 한 것이 행랑마당이다. 행랑마당은 하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넓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대문을 거쳐서 행랑마당을 건너와야 하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간격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 후에도 안대문을 거쳐야만 했고 선교장에서는 안채로 난 중문에 내외벽을 설치해서 다시 한 번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다.¹⁹⁾ 중문에 설치된 내외벽은 선교장을 비롯한 다양한 양반 가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장치이다. 이처럼 외부 사람들은 바깥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행랑마당을 거치고 중문을 지나고 내외벽을 돌아서만 사랑채나 안채로 갈 수 있었다. 안채와 사랑채를 가로 막고 집의 전면에 위치한 행랑채는 양반 가옥의 외부와의 차단을 중첩적이고 효과적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17) 강영환, 앞 책, 98.

18)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5, 263.

19) 신영훈, 앞 책, 386; 홍형욱, “韓國 傳統住居生活 研究(Ⅱ) - 家族內 人間關係의 構造를 中心으로 -”, 『경희대학교 논문집』 14(1985), 67.



(그림 3) 충효당(왼쪽)과 선교장(오른쪽) 행랑채

2. 평민가옥의 울타리

1) 담과 울타리

평민들의 집의 경우에는 집을 둘러싼 담이나 울타리가 양반가에 비해서 매우 허술하다. 평민들의 집에서는 담을 쌓기보다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울타리는 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와 풀을 재료로 하였다. 나무와 풀은 흙이나 돌 벽돌 등 담을 구성하는 재료들에 비해서 견고하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래서 울타리는 영성하고 낮은 것이 특징이다. 관목이나 풀을 주재료로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높이 쌓기 힘들고 두텁고 견고하게 만들기도 힘들었다. 세월이 흘러서 풍화가 진행되면 쉽게 썩거나 구멍이 뚫리고 무너진다. 그래서 울타리는 차단과 방어를 위한 구실을 하기에 불리하다. 그보다는 집의 경계를 나타내고 영역을 표시하는 기능에 맞추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 돌과 흙의 복합재료로 쌓고 짚으로 지붕을 얹은 담

울타리와 더불어서 평민들의 집에 나타나는 경계의 형식이 담이다. 담에는 돌만으로 쌓은 돌담, 돌과 흙을 혼합해서 만든 맞담, 흙을 다져서 쌓거나 흙벽돌을 쌓아서 만든 흙담 등이 있다.²⁰⁾ 어떤 담을 만들 것인지는 집 근처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강가나 산간마을의 경우에는 돌담이 주를 이루고 흙을 구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흙담을 주로 쌓았다. 아산 외암리에서는 바자울과 돌담을 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산을 등진 농촌지역이라서 바자울의 재료가 되는 풀이나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을 끼고 있어서 강돌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고성 왕곡마을이나 하회마을도 외암리와 비슷하게 돌담과 바자울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다. 다른 점은 돌로만 쌓은 담이 적고 흙과 돌을 층을 달리해서 쌓은 맞담이 더 많다는 것이다. 제주 성읍마을의 경우는 현무암으로 된 돌담을 낮게 쌓아서 집의 경계를 삼았다. 이 역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택한 예이다. 또 바람이 많은 제주의 특성상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울타리는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민들의 집에서 담은 대체로 높지 않게 쌓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담 너머로 바깥을 쉽게 내다볼 수 있었으며, 바깥에서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어떤 종류의 담이든 허술하고 낮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평민가옥도 양반들의 가옥과 마찬가지로 배산임수의 지형에 위치해서 계

20) 신영훈, 앞 책, 374-379.

단식 배열의 형식을 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담이 낮고 문이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이어서 이웃한 집들과 골목에서 쉽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였다.

2) 문

평민가옥의 문은 사립문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생략하기도 하였다. 울타리를 만들거나 혹은 담을 쌓는 경우라도 문은 대체로 사립문을 달았다. 조금 규모가 있는 집에는 판자로 된 나무문을 만들어서 달기도 했다. 대개의 경우 평민들의 집에는 문을 달지 않아서 언제나 바깥세계에 안을 열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림 5) 외암리 민가의 돌담과 사립문

외암리의 경우에도 문을 만들어 단 경우와 문을 생략한 경우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왕곡마을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의 생략이 더욱 두드러진다. 문을 만들어 단 경우에도 낮 시간에는 열어 두는 경우가 많아서 안팎의 출입이 서로 비교적 자유로웠다. 일정 정도는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있었다. 왕곡마을의 집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출입문을 설치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 모든 집들에 출입문이 없고 골목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고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주 성읍마을의 경우에는 돌담이 주를 이룬다. 이 경우도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낮은 담이 대부분이다. 문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문인 정낭을 설치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정낭은 주로 집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차단이나 방어를 위한 장치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평민가옥의 문이 출입의 차단과 통제의 본래적인 기능과 비교적 거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림 6) 낮은 돌담에 문이 생략된 외암리 민가

Ⅲ. 교육적 해석

1. 양반가옥의 높은 폐쇄성과 다층적 구분

담과 울타리는 전통 주택에서 경계와 차별을 위한 장치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조선시대의 민가에서 양반가옥과 평민가옥의 담과 울타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평민가옥의 울타리와 담이 낮고 허술한데 비해서 양반가옥의 담은 훨씬 견고하고 높았다. 여기에다가 비교적 견고하고 높은 대문을 달아서 출입에 대한 통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반가옥의 담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평민가옥에 비해서 견고하고 높다는 것이다. 이는 양반가옥이 평민가옥에 비해서 높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폐쇄적 특징은 앞서 살펴본 안팎의 고저, 견고한 문, 행랑채, 수목, 고살에서부터 바깥대문을 거쳐 사랑채와 안채에 도달하기까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방향의 굴절 등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중첩적으로 강화되었다.

양반가옥의 높은 폐쇄성을 통해서 우리는 양반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양반들은 외부의 사람들을 동질집단이나 친밀한 대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차별의 대상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집밖의 사람들을 동등한 교류와 소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상의 구별이 엄격한 유교사회에서 집밖의 하층민들을 동질집단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폐쇄적 특징을 갖게 된 것이다.²¹⁾

나와 다른 존재들은 나와 친밀한 관계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 미지의 낮은 존재들은 잠재적인 적대자로 인식되기 쉽다. 잠재적인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와 차단을 위해서 중층적이고 효과적인 방어 장치로 담을 건축하고 문을 통해 관계를 통제하려 하고, 마당과 내외벽 등의 추가적인 장치를 통해서 관계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관계에는 분명한 제한과 구별을 두고자 하였다. 관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집의 구조에 반영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공간을 매우 철저히 외부와 차단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행랑채, 담, 마당이라는 차단과 완충의 공간을 두었다. 여기에 더해서 내외벽과 담을 둘러쳐서 여성들의 공간에 대한 출입뿐만 아니라 시각적 접근까지도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²²⁾

이와 같은 특징은 집안과 집밖의 구분에 비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특히 다른 신분간의 남녀의 구분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신분의 남성들이 여성들의 공간을 엿보는 것을 더욱 금기시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장의 경우 안채 출입문의 내외벽 위쪽에 작은 틈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는 행랑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안채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각적 장치였다. 곧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작은 틈이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낮은 위치에 있던 행랑채에서는 안채를 넘겨다

21) 강영환, 앞 책, 97.

22) 김대벽·신영훈, 앞 책, 83-86.

볼 수 없었다.

외부 세계를 향한 바깥 대문에 비해서 안과 안의 영역 사이에 설치된 문이 더욱 폐쇄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된 것은 조선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적 가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남녀유별의 실천을 위해서 여성들의 공간은 외간 남자들과 행랑채의 아랫사람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반상의 차별이 더해져서 그 폐쇄성이 더욱 견고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의 공간이자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집은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반상의 별(別)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장치로 구상되고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남녀유별의 형식성과 실질성

양반가옥이 갖는 매우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차단할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구획을 정해서 차단하고 구분한 점이다. 그 구획과 차단은 양반들의 거주구역인 안채나 사랑채와 행랑채 간의 구획이며, 또 남자의 공간인 사랑채와 여자의 공간인 안채와 별당 사이의 구획이다. 이러한 구획은 양반들의 가옥 안에서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양반과 상민 혹은 천민 사이를 구분하는 인식이 분명하게 존재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이 채를 구분하는 담으로 건축 안에 구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두 범주의 구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상의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와 남녀의 구분을 위한 경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반가옥이 갖는 전반적인 폐쇄적 특징은 안과 밖의 구별 즉 반상의 구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상의 구별의식은 집 안에서 양반의 거주공간과 아랫사람들의 거주 공간의 차별에서 분명하게 반복되고 강조된다. 행랑채와 안채, 행랑채와 사랑채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단과 구별의 장치들이 그것이다. 집안 살림을 담당하고 일

상의 삶에 언제나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집안 하인들과도 생활 영역을 구별하고 차단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남녀의 구별의식은 실질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여성들의 공간은 남성들의 공간에 비해서 훨씬 더 폐쇄적이다. 안채나 별당으로 구분된 영역을 설정해서 여성들의 공간을 보호하고 한정했다. 또 대문이나 안채로 통하는 중문 등에 내외벽을 설치해서 이중적인 차단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남녀공간의 구분은 조선의 사상적 기반인 유학의 남녀유별, 부부유별의 예법에 기초한 내외법(內外法)의 영향이다.²³⁾

반면에 남녀의 구분이 불완전한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구분은 불완전하고 형식적이다. 무엇보다도 행랑채에 남녀공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녀유별의 유학적인 가치가 양반계층에 국한됨을 의미한다. 평민가옥에서도 이러한 남녀공간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유학적 가치가 평민층에게 충분히 전파되고 확산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반들 자신의 주거공간 안에서 이를 하인들에게 강요할 필수적 가치로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 안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 차단은 약하고 형식적이었다. 최상류 양반가의 가옥인 선교장의 경우에도 사랑채의 내외벽은 형식적이다. 불완전하게 툇마루의 끝에 문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열 수 있게 되어 있다. 사랑채의 마루가 안채에 비해 높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건너다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23) 같은 책, 272-273.



(그림 7) 선교장 내외벽: 왼쪽은 행랑채와 안채 사이, 오른쪽은 안채 방향의 사랑채 내외벽

행랑채와 사랑채 사이에 설치해서 문을 열어도 안이 잘 안 보이게 함(외쪽), 여닫을 수 있는 문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단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내외벽(오른쪽)

내외벽의 형식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난 통로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양반마을로 꼽히는 하회의 종택들인 양진당과 충효당에도 이와 같은 통로들이 있다. 사랑채와 안채는 각각 별도의 채(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담장으로 가로막혀 있다. 그렇지만 양진당의 경우에는 사랑채와 안채가 눈에 띄지 않는 마루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을 신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충효당의 경우에는 마루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문을 거치지 않고도 사랑채에서 안채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²⁴⁾

반면에 아랫사람들이 기거하던 행랑채와 사랑채 및 안채 사이에는 문을

24) 임재해·김수남, 『안동 하회마을』, 대원사, 1996, 72-81.

설치하고 거기에 더해서 안과 밖의 시선이 차단될 수 있게 나무로 내외벽을 설치했다. 이 경우에는 차단이 매우 견고해서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안을 살펴 볼 수 없었고 안쪽에서도 밖을 내다 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남녀유별에 비해서 반상의 구분을 더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집을 상하질서의 교육에 더 중점을 둔 공간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남녀의 구분은 보다 덜 필수적인 가치로 이해되고 건축에 배려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을 통해서 반상의 구별은 더 강하게 남녀의 구별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반상의 구별에 비해 약화된 실질적 관계로 반복적으로 체험되고 교육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집을 매개로 하는 공간의 교육에서 '가족'의 개념이 신분의 틀 안에서 유지되고 집이라는 공간적인 동질성이 신분과 혈연의 동질성에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금 인간학적으로 해석하면 남녀의 구별과 반상의 구별은 다 같이 유학적 가치라는 문화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녀의 구별이 형식적 측면이 강하고 실질적으로는 소통의 길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가족이라는 일차적 집단에 속하지 않는 타 신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구별이 작용한다. 확장된 자아로서의 가족 안에서의 남녀의 구분은 형식적인데 비해서 타자에 속하는 다른 신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인간 본성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낮은 울타리와 이웃

평민들의 가옥의 담과 울타리는 집의 경계로서는 비교적 충실하지만 차단과 방어를 위해서는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도 생략하거나 혹은 형식적이다. 결과적으로 평민 가옥에서 사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항시적으로 바깥 세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열려 있게 된다. 사적 공간, 삶의 중심 공간을 외부에 대해서 차단하지 않고 열어 두는 것이다.

사적인 공간의 내밀함, 비밀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산 외암리, 안동 하회마을, 고성 왕곡마을, 제주 성읍마을 등 답사한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 배경에는 바깥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깔려 있다. 평민들은 양반들에 비해서 바깥 세계를 비교적 동질적이고 친화적인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안을 열어둘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왕곡마을에는 문을 설치한 집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동족촌으로서 자연과 혈연이라는 동질성의 중첩이 만들어낸 친밀감과 유대감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에 대해서 내부를 열어 두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 집을 넘어서 이웃의 공간으로 확장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나’를 ‘타자’에 내어 보임으로써 ‘타자’에 대한 ‘나’의 개입도 일정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웃’은 타자가 아니라 자연에 근거한 확장된 ‘나’로 이해되었으며,²⁵⁾ 공동운명체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오랜 정주와 공동 농경, 혼인에 따른 중첩된 친족 관계 등이 만들어낸 중첩적인 유대관계에 기초한 것이다.²⁶⁾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안전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자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의존의 자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농경민족으로서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어쩔 수 없는 작은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의 결과일 수 있다. 아울러 자연과 타자에 대한 자신의 전 존재의 필연적인 의존²⁷⁾ 등에 대한 자각이 이와 같은 거주공간의 특징을 만들어 내었다고 본다.

양반들의 경우 가족을 구성하는 혈연을 동질성을 구성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그래서 가족의 공간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가족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차단하였다. 평민들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혈연이 일차적

25) 윤재홍, “울타리의 교육인간학적 의미 연구”.

26) 이명희, “조선 후기 향촌의 지역공동체 문화와 자치적 전통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16, 2002, 418.

27) E. Levinas, *Ethique et Infini*,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0, 135

동질성을 구성하지만 지연 역시 매우 중요한 동질성의 구성 요소로서 삶을 규제했다. 가족의 동질성인 혈연과 지연이라는 지역적 공간적 동질성이 양반 계층에 비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모두 중요한 필수적인 가치로 이해되고 공간의 건축과 활용에 투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차적 혈연 공동체인 집안을 지역공동체인 이웃에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은 그 분명한 증거이다.

그것이 공간 안에 구현된 것이 낮은 울타리와 문의 생략으로 드러난 개방성이다.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웃이라는 지연공동체의 필연적인 얽힘, 그 얽힘에 기초한 삶의 안정성, 어울림의 중요함을 교육한 것이다. 양반들의 주거와는 다른 이러한 특징들을 매개하는 반복적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웃은 적대적이거나 적대적인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더욱 굳건하게 지탱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공동체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낮은 울타리와 열린 문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바깥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집은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착지이며 보호 장소이다. 집의 일차적 기능은 보호이고 집이 부여하는 보호적 기능 안에서 인간은 안정을 누린다. 평민들은 낮은 울타리와 열린 문을 통해서 이웃에 열어 두었다. 집이 주는 보호와 안정을 이웃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지키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을 만들었다면 이웃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한 집의 확장은 집의 보호적 기능이 다른 차원으로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맺는 말

위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현상으로서의 전통 가옥을 다루었다. 인간이 만든 문화현상 속에는 가치관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집이라는 문화현상을 기관이자 통로로 해서 당시 사람들을 이해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흔히들 조선의 주택들 특히 양반들의 주택들은 그들의 유학적 이상의 실현을 위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전통 주택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유학적 가치관이 투영된 건축이라는 점을 지적하곤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여기에서는 양반들의 집에서 그러한 유학적 가치관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평민들의 삶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양반들의 가옥들은 비교적 규모를 갖춘 기와집들로서 조선시대의 대표적 양반 가문들의 가옥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집을 짓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은 여러 가지 제약을 넘어서서 그들의 이상에 충실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이들 양반 가옥들이 위치한 마을들의 평민가옥들과 비교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논의 내용이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게 의도적으로 소박한 집을 꾸미고 살았던 다른 양반계층이나 몰락한 양반들, 부유한 평민들 등 다른 경우들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제한된 대상들에 대한 연구임을 전제하면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양반가옥들과 평민가옥들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반가옥은 별(別)의 질서를 비교적 잘 구현하고 있었다. 특히 신분의 구별 즉 양반과 평민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높은 담과 대문, 행랑채 등으로 안과 밖을 비교적 분명하고 차단하고 구별하였다. 집 안에서도 양반들이 거주하는 안채와 사랑채와 하인들의 거주공간인 행랑채 사이에 담과 문을 달고 덧붙여서 내외담을 설치하는 등으로 중첩된 차단을 만들어 내었다. 이는 신분간의 구별이 양반들의 집에 잘 반영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구별의식이 확고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에 비해서 남녀의 구별은 실질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었다. 남녀의 공간을 별도의 채로 구분하고 담이나 문으로 구분하는 등 엄격한 형식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는 바깥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기 힘든 별도의 문이나 통로 등을 통해서 쉬운 왕래나 소통이 가능한 실질적 측면을 보여준다. 행랑채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서 같이 거주하는 하층 신분에게는 남녀의 구분을 강요하지 않은 특징도 찾아 볼 수 있다. 결국 남녀의 구분은 실질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고 실천하려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상징적 형식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평민 가옥의 경우는 안팎의 구분이나 남녀의 구분이 모두 분명하지 않다. 낮은 울타리, 열려 있거나 생략된 문, 남녀공간의 구분이 없는 점 등이 양반들의 가옥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다. 유학적 가치관을 반영한 형식성이나 상징정보보다는 가족의 공동의 공간으로서의 집의 본질에 매우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 이웃과 삶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유대와 공동성을 확장해서 삶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반가옥의 경우 보다 유학적인 이상의 구현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평민가옥은 삶의 실질적인 측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한 편으로 유학적인 가치가 평민층의 주거의 형식을 바꿀 정도로 철저하게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의 기본 기능은 인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의 기본적 기능의 구현을 위해서 양반들은 구별하고 차단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면 평민들은 이웃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보호와 안정의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됨의 문제, 인간형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집을 짓느냐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문제와 직결된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집 안에 신중한 교육적인 배려들을 만들었다.

오늘날도 우리는 집을 짓고 학교를 건축한다. 그러나 옛 사람들만큼의 교

육적 배려의 신중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집을 짓고 학교를 건축하면서 교육적인 배려에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성장 세대들은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공간의 개방과 공유, 이를 통한 이웃 공동체 등을 오늘날의 건축에 배려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chelard, G., *La Poétique de L'espace*.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 Bollnow, O. F., *Mensch und Raum*. 5 Aufl. Stuttgart, 1984.
- Bollnow, O. F., *Pädagogik in anthropologischer Sicht*, Yamagawa Univ. Press, 1971,
오인탁·정혜영 옮김, 『교육의 인간학』, 문음사, 2005.
- Heidegger, M., *Bauen Wohnen Denken. Vorträge und Aufsätze*. Tübingen 1954.
pp.139-156.
- Kern, S.,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 Harvard Univ. Press, 1983, 박성관 옮김,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2004.
- Levinas, E., *Ethique et Infini*.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0.
- Rapoport, A., *House Form and Culture*, 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9.
- 김대벽·신영훈, 『한옥의 고향』, 대원사, 2000.
- 김종현·주남철,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88, 1996, 81-89.
-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上 - 한국전통민가의 원형연구』, 열화당, 1983.
- 윤재홍, “‘올타리’의 교육인간학적 의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윤재홍, 『우리 옛집 사람됨의 공간』, 집문당, 2004.
- 윤재홍, “전통 주거에 나타난 한국인의 자연관과 그 교육적 의미 - 텃제, 집짓기 재료
의 선택과 가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3(1), 2011, 97-113
- 윤재홍, “한옥에 반영된 구별의 질서와 그 교육적 적용에 대한 해석 -답과 올타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4(2), 2012, 77-98.
- 윤재홍, “전통사회의 어린이 공간으로서의 마당과 골목의 특징”, 『한국교육사학』
34(4), 2012, 83-101.
- 윤재홍, “주거에 반영된 한국인의 자연과의 관계방식과 그 교육적 해석”, 『한국교육
사학』 35(2), 2013, 1-17.
- 이능화, 김상익 역, 『朝鮮女俗考』, 동문선, 1990.
- 이명희, “조선후기 향촌의 지역공동체 문화와 자치적 전통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 문화』 16, 2002, 384-421.
-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 임재해·김수남, 『안동 하회마을』, 대원사, 1996.
- 임의제, “조선시대 사대부의 가거관에 관한 연구 -곡류단절지에 입지한 전통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3), 2002, 54-67쪽.
- 정성관·이정, “담장의 구조에 대한 의식 및 시각적 선호도 분석”, 경북대학교. *J. of Enviorn & Sci.* 7, 1993, 185-207.
-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5.
-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 한국교육사학회 편, 『역사속의 교육공간, 그 철학적 조망』, 학지사, 2011.
- 홍형욱, “韓國 傳統住居生活 研究(Ⅱ) -家族內 人間關係의 構造를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논문집』 14(1985), 61-88.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outside that reflected in the fence (wall) of traditional Korean house

Yun, Jae-Heung *

In this article, through the features of the fence and the wall of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understanding of outside world is consider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house of Yangban - an aristocrat and the house of a commoner have the fences and walls which have different features. The feature of the house of Yangban is closure. The house is cut off the outside by high walls and strong doors. Hangrangchae is put at the front of the house, protecting the inside of the house. The house has the wall which separates a master's dwelling from servants' dwelling. There is the wall which tells man's space from woman's space. These separations are influenced by Confucianism, the basis of Yangban's values. That is, Confucian values are reflected in the structure of the traditional house. Relatively, the walls and fences of a commoner's house is low and shabby.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which is essential and important to life is left open to the outside world. This is possible because Koreans

* Korea Nazarene University

regard their neighbors as friendly and homogeneous, not as hostile. The tradition that people lived in the same area, farmed together, helped each other formed this positive understanding. Yangban and commoners build their housing differently based on their different values- Confucian values and positive understanding of their neighbors. And the features of the living spaces have affected next generations through people's lives.

Key Words : wall, fence, house, space, Korean traditional house